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느헤미야의 개혁 I

(느 13:1-14)

The Reformation of Nehemiah I

(Neh. 13:1-14)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 예배를 드린 후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돌아간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떠나 올 때 돌아 올 기한을 정하고 떠나 왔기 때문입니다.



박노철 목사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 신앙개혁의 힘이 무디어 지고 불순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다시 통혼을 하고, 자녀들이 유대 말을 잊어버리고, 도비야가 성전에 큰 방을 차지하게 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등,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After he rebuilt the wall of Jerusalem and worshipped God at the dedication of the wall, Nehemiah had left Jerusalem for a while and visited King Artaxerxes then returned back. The reason why he went to him for a little while was that in the past when Nehemiah visited him, he had set a deadline to visit him again.

However, after Nehemiah left Jerusalem, the power of the faith reformation became dull and many evil things happened. The people of Judah intermarried with other peoples; their children forgot the Judaic language; Tobiah took a large room in the sanctuary; they didn't keep the Sabbath etc., and many other evil things arose.

예루살렘에 돌아 온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Nehemiah, who came back to Jerusalem, immediately put up the banner of reformation. He made the people live a discriminated life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with God's word.

“그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1절).

“On that day the Book of Moses was read aloud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and there it was found written that no Ammonite or Moabite should ever be admitted into the Assembly of God” (v. 1).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저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총독이라고 하는 공식적 권위가 있었고, 성벽을 재건한 공로와 그 밖에도 많은 업적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Nehemiah did not approach the people on his own authority or position and did not come to them based on his own knowledge and experience. He thoroughly deserved to approach his people with his authority as he was the official governor, and could assert his meticulous deed of rebuilding the wall and many of his achievement too.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고 개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가정, 일터와 우리 교회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However, Nehemiah relied on only the authority of God's word, and started to reform again. Do we really want to achieve true reformation in our life, family, at work, and in our church? If so, we must return to God's word and begin solely from God's word.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3절).

“When the people heard this law, they excluded from Israel all who were of foreign descent” (v.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등 이방 무리를 모두 분리해 냈습니다.

Hearing God's word, the Israelite people excluded from Israel the Ammonite and Moabite, etc. all groups who were of foreign descent.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십일조 등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성껏 드리겠다고 결심한 바 있습니다(느 9장).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들은 그 결심이 해이해져서 다시금 통혼을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통혼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The Israelite people were previously determined not to intermarriage, to divinely keep the Sabbath, to offer the tithes to God with their whole heart (Neh. 9). Nevertheless, when Nehemiah had left, the Israelites faulted in their decision. Because they had intermarried, they lost the holiness of being God's holy people. The grandson of the priest Eliashib even became a son in law of Sanballat. Nehemiah firmly brought the Israelites to God's word concerning intermarriage.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있는 불순한 요소들을 제거시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God's word starts a reformation. When God's word is spoken to our hearts, we must, first of all, get rid of the impure elements in our life, and then we can begin to move forward into holiness.

- 느헤미야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다가 다시 쇠퇴해진, 그래서 더 어두워 보였던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 새롭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 Nehemiah experienced a spiritual reformation. However, while he was on the decline again, and at a time of not being noticeably unseen, he moved forward basing his authority purely on the word of God and His authority to begin the reforms.

- 그리고 그의 개혁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 번 신앙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 And Nehemiah's reformation succeeded. Therefore, Nehemiah and the people of Judah, in the midst of God's presence, began to shine in the light of faith once mor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말씀은 생명이고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사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God's word itself was life and joy for Nehemiah. All of us must decide to obey God's word once again. By living according to the absolute standard and value of God's teaching, I sincerely hope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blessed people.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위한 공동의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2층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 위임목사로 서울강남노회에 청빙 청원을 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9월 25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 2층에서 열린다.

이번 공동의회는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28조 목사의 청빙 2항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동의회 참가자격은 2011년 9월 18일(주일)까지의 등록자로 2011년 9월 25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오늘 1,2,3부 예배 후 선거인 명부 대조 및

투표권을 교부한다. 공동의회 참가할 자격이 있는 성도들은 선거인 명부에 낱인 후 투표권을 교부받아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제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 한다. 투표를 마친 후 공동의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위임목사 청빙 서명 연서(세례교인)에 서명한 후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된다.

이종운 원로 목사는 오늘 찬양예배 설교를 하며 공동의회에 참석한다. 2대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은혜 중에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기도 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21]

(문 18) 창 9:24-28에서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하고 그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 하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리고 이것이 노예제도의 시작인지 또한 노예제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된 것인지?

(답) : 술 취해 벌거벗은 아비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고 그것을 폭로한 함에게 저주가 부여됐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했습니다.

함은 가나안 외에 세 아들 구스와 미사라임과 붓이 있었습니다.(창10:6) 그러나 저주는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된 가나안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흑인의 조상이 된 구스와 붓에게 저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저주는 여호수아의 정복시기(Ca. 1400B.C)

신구약 성경 가운데 노예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같은 노예제도는 애굽 수리아 바벨론 앗시리아 페니키아 수리아 모압 암몬 에돔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노예는 고대사회에서 상업 세금 성전에서 쓰였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성이 강조되기 전까지 노예제도는 만연되어 왔습니다.

창9:25의 노예는 정치적으로 외국의 힘에 복종함으로써 만들어진 노예를 의미한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는 모세율법에 따라 6년을 섬긴 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출21:2-3)

어떤 경우엔 노예가 큰 영광을 얻는 때가 있습니다. 존귀한 자가 그들의 종이라 불리울 때입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이라 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크리스천이 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크리스천 자유인의 형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주를 섬기듯이 자기 상전을 신실하게 존경하며 바른 행실로 섬겨야 했습니다.(엡6:5-8) 물론 그들 중에는 그들의 자유를 사려고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고전7:21)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므로 하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사는 사람은 노예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2011 사랑의 바자 4일 앞으로

9월 29일(목)~30일(금)

구분	식품(교회외마당)	잡화(1층로비)	의류(2,7층)	푸드코트(8층)	비고
1	쌀, 보이차	여성팬드백 약세사리, 구두	여성의류	호박죽	현웃
2	밤, 조청 건강식품	약세사리 화장비누	양말,티셔츠,캐주얼바 지		
3	쌀, 과자 포도,양념소불고기	약세사리,한방생리 대,인형	스카프,폴로티	과일쥬스,커피,약차	현웃
4	한과, 선물세트	태비누,패수건	아동복	육개장	현웃
5	세우것,겉갈 나라스꺼(영어치)	기능성비누	이불	식혜	현웃
6	된장,간장,고추장,매 실원액,마늘,소금		수입머플러	해물피전	
7	건어물,젓갈	황토숙우,그라스막		매밀전	현웃
8		파우치,쿠션, 랜드로버자전거	여성바지,여성티		현웃
9	빵,참,틀기름,깨소금, 열무김치	가전, 나이키신발			
10	오미자,당근,마늘	침술,치약,저감,양말, 정수사워기	등산복	녹두빈대떡	
11	들,참기름,참깨, 모시떡,편백	제일모직스포츠, 스프리스 신발,	이동우쿨렉션, 보세 수입의류	순대	발 동 내 의
12	잡곡, 경육고, 간장	가방,팬드백 (모마겔라)	유리닝,와이셔츠,여성 의류	떡볶기	현웃
13	다마리장(조림장),	펼질백,수면베개,우 산	와일드로즈아우터,어 성의를류	떡볶이,오뎅,샌드위치,중무 김밥(김밥),캘리포니아롤	현웃
14	명란젓,사골,장뇌삼, 달걀비	구두	모피		현웃
15		화장품	캐프리카네트		현웃
16	ecosway 주방행주, 청소용품 과일	약세사리(이코젬)	속웃	진치국수,왕만두	현웃
에바 다부				호떡	
호산 나대 학	간장,된장,쿠키	약세사리,비누	레노마,이태원보세의 류		

은 교인이 기도와 수고로 준비한 2011 사랑의 바자가 29일(목) 오전10시 개장예배를 시작으로 30일(금)까지 계속된다.

이번 사랑의 바자는 행복한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수익금은 교회목표중 하나인 빈약한 자구제를 위해 장애우와 노인 복지를 위한 아가페타운 건립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돕기, 사랑의 우물파기라는 이웃사랑실천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인다.

성도들의 기도로 준비된 사랑의 바자가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한다.

기증품은 사무국에서 접수받고 있다.

이종진 목사, 고등부 지도 파트타임 교역자로 청빙

우리 교회 당회는 고등부를 지도할 파트타임 교역자로 이종진 목사를 청빙하기로 하였다.

이종진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신대원(M.Div)을 졸업한 후 연세대 교육대학원 및 장신대

대학원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998년 5월 서울강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을지로교회, 베다니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재직하였으며 정의여중 교목실장으로 있다.

스데반회 연합 체육대회

10월 3일(월) 오전 10시 - 교회출발 8시 30분

제1, 2 스데반회에서는 당회원과 은퇴장로, 은퇴 집사들을 초청하여 「2011 스데반회 연합 체육대회」를 아가페타운에서 10월 3일(월) 오전 10시~오후 5

시까지 갖는다. 모든 회원들은 부부동반으로 참석하기 바란다.

사명자대회 특별기고문

왜 사명자대회인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서울교회는 교회설립 50일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출발했다. 그때 받은 사명(비전)을 확인하고 바르게 후대에 전수시키려고 해마다 교회 설립 50일전부터 사명자대회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확인하고 있다.

I. 역사의 흔적을 기억하려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이룰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다.(신32:7)

역사는 본래 하나님의 경륜의 집행 장소다. 20년 전 과거사를 미화시켜 인간 예찬을 하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겸손히 인정하자는 것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자기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경고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할 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한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권함을 받지 아니 하리라(눅16:31)하셨다. 이것은 역사의 실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는 것보다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지난날의 문허진 형해(形骸)가 아니다.

II.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키 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부정하라. 우리는 역사에서 그 멀고 또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겪어온 일들 즉 가슴벅찬 일, 가슴 메어지도록 아팠던 일, 감격에 소리치고 비애에 땅을 치던 일들, 축복에 찬송하고 환난에 도움 찾아 손 뻗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인식해야 한다. 내 모습이 거기에 있고 내 자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신8:2)

우리는 그때에 목자 잃은 양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의 슬픔을 안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통곡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렸다. 인간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섭리의 실현과정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인간 행적을 드러내어 후세에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와 약함과 불순종과 불충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III. 겸허한 반성과 회개 그리고 언약의 연속성을 따라 영하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롬15:4)

세상의 일들은 그것이 먼 곳에 있던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다 나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과

신이 역력히 드러난 것을 보게 된다. 과거를 회상하여 우리의 빛은 모습과 천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지난 역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회개를 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행적을 찬양하고 자랑하면 거기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통해 세워 주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불변성, 연속성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비전(사명)을 오늘도 계속 감당하고 내일도 잊지 않고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더 크신 복이 임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Soli Deo Gloria!

위 글은 2010년 사명자대회를 앞두고 사명자대회의 당위성에 대해 이종운 원로목사가 순례자에 특별 기고한 글이다. (편집자주)

만민에게 전도

마다가스카르에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원시적인 부족이 살고 있는(지금도 채집과사냥을 그들의 유일한 삶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미케아 숲이 있는 안자베투루구와 베분드루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모금하여 새로 산 랜덤크루저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 동안 더 깊은 오지로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자연의 방어벽과 험난한 길에 막혀 저희들의 활동은 제한적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새로 산 랜덤크루저는 그러한 제한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차로 가시 나무와 깊은 모래 길을 헤치고 숲 속으

로 들어가다가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면서 유숙하고 있는 일단의 미케아 종족을 만났습니다.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어서 부싯돌과 아직도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는 이들은 외부인을 두려워하고 피하며 외부인을 발견하면 도망치는데 이들의 조상들이

다른 종족이나 외부인의 퍽박을 피하여 숲 속으로 숨어들어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잠시 검진 하였는데 심박동수가 모두 100회가 넘고 심지어 120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여 심장이 튼튼한 이들은 보통 70회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impression은 심한 탈수증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겨우 구해온 Baboo라고 하는 나무 뿌리(수분이 많은 무처럼 생겼지만 수박 같은 것)

를 허겁지겁 모래가 묻은 채로 먹었습니다. 그 지역은 매우 마른 dry forest 지역이기에 이들이 물을 구하려면 아침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간 물은 이들의 경계심을 풀고 친구가 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숲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서 진료를 하면서 진료비 대신 받은 카사바와 고구마를 또한 선물로 주었습니다. 최소한 며칠은 음식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Camp에서 이들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양만큼 음식과 옷을 구하여 더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들과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10월에 다시 이 지역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 때는 지금보다 좀더 오래 이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서서히 서서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님과 서울교회 도고팀,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재훈 박재연 선교사 올림

사랑의 바자

사랑의 바자 바자물

정영은 성도 (청년2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를 표어로 2011 사랑의 바자가 9월 29일, 30일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열리는 바자이고, 보통 주중에 열리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학교를 가야하는 학생이나 회사에 출근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인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에게는 으레 어른들의 행사라 여겨지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라는 표어에 맞게 교회홈페이지에서 9월 한 달동안 온라인 ‘바자물’을 통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자물 제작에 있어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기획부서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준비하는 기간



이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지켜보기만 했던 바자회를 준비하는 손길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게 되었고, 처음 시도해보는 온라인 바자물이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부족한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여가 어려우셨던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들도 이웃사랑과 아가페다운 건립지원,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등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한 이번 2011 사랑의 바자에 온라인 바자물을 통하여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시30분 601호에서

서울교회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서울 음악교실이 매주일, 오후 1시30분부터 601호실에서 열리고 있다. 찬양대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호흡법, 발성법, 계명창법, 기초 음악 이론 등을 박정선 장로(전 단국대 음대 학장)의 실습 위주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9일(목) 한장총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서울노회 포럼에서 특강한다. 30일(금) 장로교역사 박물관 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 9월30일-10월4일 몽골 기독교대학(몽골국제대, 후려대, 울람바타르대)교수연합 수련회 개최예배설교와 특강차 출국한다. 10월2일(주) 울람바타르 제일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한다.

■ 이사: 김만윤 성도 장호림 집사 잠실3동 트리지움아파트 327동 1403호
서경학집사 이영숙 권사 가정 서초구 양재동 65-1 범양빌라 101호

■ 주간식당봉사: 제1권사회(9.25) 제2권사회(10. 2)

■ 금주의 식사: 김종철 집사, 주성숙 권사 가정
정종순 권사 유가족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지난 9월17일(토) 오후7시 3사단 십자군 교회에서 있었던 3사단 진중세례식



마리아전도회 주최 바자

루치아노 최 / 10월10일(월)-14일(금) 롯데강남점 8층

마리아전도회(회장 박현영 권사)는 10월10일(월)-14일(금)까지 5일간 롯데강남점 8층 행사장에서 숙녀복 브랜드 루치아노 최와 공동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가 열린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1 가을 시즌 화요 정오 음악회

10월 11일~ 11월 22일

제15회 화요정오음악회가 시작된다. 2011년 화요정오음악회는 10월11일 정오부터 11월22일까지 매주 화요일 본당에서 저명한 오르가니스트들의 연주로 열린다. 관람석은 본당 3층에 준비된다.

10. 11	김은성	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겸임교수, 주님의 교회 오르가니스트
10. 18	차주연	한양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졸업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졸업(석사, 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10. 25	박옥주	성공회대 출강,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좌성당 오르가니스트
11. 1	박소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교수 한국오르가니스트 협회 이사장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오르가니스트
11. 15	백금옥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한국교회음악학회 회장
11. 22	김현정, 김윤지	연세대, 한예중, 장신대, 침신대, 백석예술대 출강,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이사 인천남구청소년합창단 반주자,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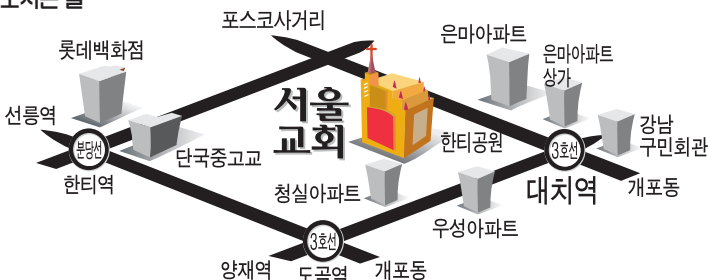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9일(목)~30일(금)에 열리는 사랑의 바자가 풍성한 사랑과 기쁨의 나눔터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돌리도록
2. 이제 곧 시작되는 사명자 대회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며 서울교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짐에 따라 열매도 더욱 풍성해지도록
3.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훈/박재연 선교사님 가족을 위로하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